



12면

예술로 마음 잇고, 소리로 세상 풍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음 5월 25일) 제376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2박 3일간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중인 김관영 도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최고 은행인 BNY 본사를 방문해 카심카 월스트롬(Cathinka Wahlstrom) COO(Chief Commercial Officer, 최고 상업책임자)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전

도, BNY멜론·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협력 강화 한인 금융전문가들과 간담회 열고 금융산업 기반 공유 기후에너지 등 연계 자산운용 금융허브 육성 전환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북도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세계적 금융기관인 BNY멜론(BNY Mellon),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북도는 뉴욕과 보스턴 현지에서 글로벌 금융기관에 전북 금융산업의 비전과 경쟁력을 소개하고, 전주 내 사무소 설립과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뉴욕 현지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 및 월가의 한인 금융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과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이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BNY 본사를 방문해 카심카 월스트롬 최고상업책임자(COO) 등 임원진과 만나 공동사업 확대, 인재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NY는 2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53조1,000억 달러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으며, 2019년 은행 부문, 2023년 자산운용 부문 전 주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자치도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니포럼에서는 로빈 빈스 CEO가 '지니어워즈' 수상과 함께 삼국 전역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보스턴에서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방문해 카밀 칼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전주 사무소 설치와 공식 제안서 조성과 디지털 자산·ESG 투자 등 미래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피델리티는 약 5조9,000억 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및 ETF 자산도 위탁운용하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금융사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북을 스마트농생명 및 기후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자산운용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국내의 금융기관 16곳이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정부의 차기 국정과제에 '금융중심지 지정' 반영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특화도시 조성이 지역공약으로 포함돼 있어 제도적 추진 동력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 통과 등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되며 금융중심지 추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번 미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이 전북의 미래 금융생태계를 여는 뜻깊은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반드시 남원으로'

시, 운봉 허브밸리서 유치 염원 결의대회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 남원시민 등 대거 참석 "최종 부지 확정에 온 힘"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열기가 뜨거워 가는데, 19일 남원 운봉 허브밸리에서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와 남원시민이 참석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경찰청 공모에 남원시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국회 대토론회와 영·호남 유치 결의대회 등으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단과 시군 회장, 그리고 남원시민 및 유관기관·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간절한 바람을 함께 나누며 염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특히 경기 남부, 부산, 제주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들도 남원 유치를 지지에 뜻을 함께하며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19일 남원 운봉 허브밸리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에서 최경식 시장,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 남원시민들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유치에 대한 열띤 의지를 함께했다.

행사에 참여한 손범수 경찰청 직장협의회 전북 본부장은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호남의 중심지이자 경찰 정신 교육 상징성 있는 남원 유치를 그 설립지로서 충분한 담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찰 내부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는 등 남원시가 최종 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후보지로 제시된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로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행위제한이 없

고, 5~10도 수준의 완만한 경사도를 갖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더불어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시설의 단계적 확장은 물론, 복합 개발을 통한 활용도 제고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개발 속도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와 국유재산 활용 방향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유치 열기와 공감대를 대내외적으로 재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최종 부지 선정까지 정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 유희숙 신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장 임명 | 8월 1일 부임

올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 인사 명단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1일자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에 유희숙(57·시진)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희숙 씨는 부산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다.

1997년 제3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전북도청 환경녹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익산시 부시



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시도지사의회의 영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이며, 8월 초 귀국과 동시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으로 새롭게 부임할 예정이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무대 경험까지 갖춘 유 단장의 합류로,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한층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국장급 전보인사는 유희숙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 내정자를 포함해, 민선식 남원부시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등 총 3명이다. 민선식 남원부시장은 내달 1일 농생명축산산업국장에, 강영석 익산부시장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과장급 전보인사는 23명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